

# 미래의 학문, 신문방송학과의 교육 현황과 개선 방향

최 창 섭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신문방송학

세계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변하면서 세계는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오관을 통해 경험했던 세계와는 매우 혹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정보가 있고, 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있으며, 정보를 움직이게 하는 미디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 신문방송학은 정보와 미디어, 환경과 사람 모두를 다루는 학문이다. 신문방송학은 인쇄 매체 및 전파 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 왔고, 이제 뉴 미디어와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 궤를

같이 할 미래의 학문이라 칭할 만하다.

신문방송학이라는 이름만을 갖고 볼 때,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마치 신문과 방송이라는 독자적인 두 영역만을 다루는 듯한 인상을 받기 쉽고,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신문 기자나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물론 신문방송학과에서 신문과 방송을 다루고, 졸업 후 취업 영역에서 기자나 프로듀서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학과의 명칭이 주는 인상은 신문방송학이 갖고 있는 특성 중 중요한 일부일 뿐이고, 사실 신문방송학이 다루는 영역이나 졸업 후의 진출 영역은 정보 사회의 미개척 분야를 고려한다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학문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는 신문방송학, 신문방송학과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오늘날 신문방송학 교육의 현 위치는 어디이며 그 지향점은 무엇인가? 빠르게 변해 가는 국제 정세나 국내 사회 환경, 방송 환경 등 사회변동의 대세 속에서 첨단, 또한 미래의 학문으로서의 신문방송학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보는 것은 시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에 신문방송학이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받아 대학에 학과가 설치된 때가 1954년의 일(1954년 3월 홍익대에 신문학과가 설치됨)이니 올해로 42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자면 열기왕성한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가는 완숙한 장년의 나이이다. 장년의 나이에 걸맞게 신문방송학은 학과 수나 교수진, 학과를 통하여 배출한 인재 등을 볼 때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여기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신문방송학 교육과정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개괄해 보기로 하겠다.

### 1) 교육목표

이강수 교수는 신문학 교육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초기 언론학 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에 대한 목적의식의 결여와 교육방향을 뚜렷이 설정

하지 않고 출발한 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sup>

하나의 독립된 학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교육목표와 이를 위한 교수진 확보, 교육 시설의 완비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신문학과 설립기에 학교 경영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교육의 목표나 교육 방향 설정에 혼선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언론학 교육의 목표를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한 이론 중심의 교육에 그 목표를 두었는지, 아니면 실무 훈련 위주의 기자나 방송인 양성과 같은 전문적 직업교육에 두었는지 또는 이론과 실무의 통합 교육에 두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신문방송학 교육의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는 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습 시설 설비를 의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교육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하였다. 뒤에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1960년대 이후 전자 매체의 발달로 이른바 방송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방송 실습 기자재의 절대 부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메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선진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 언론학의 교육목표를 학술 연구자나 교원 양성, 고급 전문 언론인 양성으로 이원화하여 그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내지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 학생들이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 교육을 집중적, 조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2년에 발간된 한국방송개발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문방송학 교육목표도 이제는 '이론·실무 혼합 형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1) 이강수, "한국 신문학 교육의 문제성과 방향", 『신문학보』, 제 6 집, 한국신문학회, 1973.

이론 중심의 교육이나, 실무 위주의 교육이나, 통합 교육이나의 교육목표 설정은 여전히 대학의 실정과 교육이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거기에 대학원 교육과 학부 교육의 차별성까지 논하게 된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어 교육목표를 설정하는가는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학의 목적이 기능인의 양성이나 기술의 전수에 있지 않고, 사회 현실상 지나치게 아카데미즘에만 빠져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론과 실무의 혼합 교육은 타당한 설정이라고 여겨진다.

## 2) 교육과정과 그 문제점

학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은 내용적 충실도이고, 그 내용을 담보해주는 것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다. 차배근 교수는 우리나라 각 대학 언론관계 학과의 현행 교육과정에 대해 “각 대학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지 않고, 교수들의 관심 영역 또는 교수 가능 과목들을 수합해서 모자이크식으로 배열해 놓은 것 같다”<sup>2)</sup>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훌륭한 저널리스트의 양성이 미국 대학 초기의 저널리즘 교육목표였고, 교육과정도 이에 따라 저널리즘 교과목 이외의 인접 학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체 교과목의 25%만을 전공 과목으로 개설, 기초 과목을 이수한 3학년이 되어서야 미디어별 전공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

나 전과 매체의 발달과 함께 학과의 교육목표를 모든 대중 매체를 포괄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해에 있다고 보는 젊은 교수들에 의해 직업 위주의 교육과정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조사와 분석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실무 교육 위주의 언론인 양성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채, 학과의 분할이 이루어져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이론과 미디어 학과(신문학과, 방송학과, 잡지학과 등) 중심의 이중적 교육체계가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의 신문방송학과는 장년의 나이에 이르는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교육 현실을 볼 때 학과의 내용적 충실도와 관련하여 교과목의 편성상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그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교과 영역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고, 교과 영역간의 균형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영역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한두 과목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이는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교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가 관련되겠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관련된 분야의 학문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것이 다시 학과 교육 과정에 적용되는 데 걸리는 시간적인 지체 요인을 들 수 있다. 학문에 유행이 있을 수야 없겠지만, 과학 기술 발달의 가장 강력

2) 한국방송개발원, 『방송교육 커리큘럼 개선방안 연구』, 1992. 12, 7~8쪽.

3) 차배근, “한국 언론학 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1993, 8쪽.

한 영향권 안에 있는 학과의 특성상 지나치게 과거의 전통적인 학문적 틀 안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번째 요인은 교수 위주의 교과 편성 관행이다. 해당 학과 교수들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혹은 각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많은 문제가 따른다. 물론 교수들의 전공 분야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더라도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전임교수진이 전공 분야별로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현 실정에서 교과목의 편성은 비체계적이고 불균형적일 수밖에 없다.

교과목 편성에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학과의 특성인 전공의 복합성 문제이다. 강대인 교수는 이론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과 신문방송학과의 넓은 영역을 주마간산 식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의 제도로는 방송 전문인을 양성할 수도 없고, 방송학에 대한 올바른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대학에 들어오면서 더욱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즉 저널리즘 전공, 라디오·TV 전공, 광고·PR 전공, 연극영화 전공 등으로 구분될 경우, 공통된 매스컴 이론 과목 외에 각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한편, 전공과목의 복합성 문제는 현재 신문방송학과의 교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과목의 이름이 '○○원론', '○○개론', '○○편성·제작론' 등 세분화되지 않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신문, 방송, 광고 등으로 전공이 세분화되지 않은 채 이들 모든 전공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거나, 전공 필수 과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학생들은 매스컴의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하는, 그래서 숲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무는 보지 못하는 맹점을 안게 된다.

### 3) 현행 실무 교육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의 교육목표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론과 실무의 혼합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방송학이 언론인 양성을 학과의 목적으로 하든지,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목적으로 하든지 간에 학생들이 최소한의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의 실무 교육 현황은 1985년 전국 20개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학부 과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564개의 교과목 중 실무 또는 실습 과목의 수는 75개 과목으로 전체의 13.3%에 불과했다. 이는 한 대학 평균 3과목 꼴로 신문 분야가 평균 1.4과목, 방송 분야가 평균 1과목이었으며, 이들 실무 과목도 제작 실습이 아니라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습 시설 현황도 열악해서 1985년 신문이나 잡지 관계의 실습실이 있는 학과가 13개, 방송 실습실 또는 스튜디오가 있는 학과가 13개, 사진 실습을 위한 암실이 있는 경우가 13개로 약 60%의 학과가 빈약한 실습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2년에 이르러 조금 호전된 양상을 보인다. 조사 대상 21개 대학

4) 강대인, "방송학 교육의 방향", 『방송연구논선』 제 1 호, 한국방송학회, 1989, 96쪽.

중 자체 실습실 보유(8개 대학), 자체 실습실과 시청각실 등 관련 기구 병용(6개 대학), 실습실은 없으나 시청각실 등 관련 기구 이용(5개 대학), 자체 실습실 및 여타의 실습 공간이 없는 대학은 2개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실습 기자재 수준을 보면 14개 대학(66.7%)이 라디오 및 TV 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고, 일부 대학은 라디오 및 TV 실습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었다.

신문방송학과와 교수진도 방송 관련 교과목의 경우, 이론 담당 교수진은 방송 현업 경력이 있는 교수와 없는 교수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실무 과목의 경우 대체로 방송 현업 경력이 있는 교수와 강사진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발전이 얼마나 충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리고 여전히 실습 기자재의 확보나 실무 과목의 확충은 신문방송학과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이다.

#### 4) 졸업생의 사회 진출

오늘날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졸업 후의 사회 진출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을 사회 진출에 얼마나 살려 나갈 수 있는가는 비단 신문방송학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학과가 봉착한 문제이다. 기술과 관련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부분 학과의 졸업생은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사회로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문방송학과 졸업생 역시 언론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전공자들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상식 시험을 보는 공

개 채용에 응시해야만 한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이유가 오로지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의 현업 언론계 진출이 부진하다는 것은 신문방송학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현행 언론계의 신입사원 채용 제도는 서류 전형, 필기 시험(영어, 상식, 국어), 작문 및 실기, 면접 형태의 공개 채용 제도이다. 이러한 채용 제도는 취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채용 기준의 객관성 보장, 기별간의 경쟁의식을 통한 업무의 발전, 시험을 통한 주인 의식 함양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엄청나게 급증한 언론 지망생들을 선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대학에서 받은 교육의 성격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영어와 토막 상식을 얼마나 잘 보았는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본질 자체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언론 환경의 변화와 전문직으로서의 직업 의식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갖는 적실성과 효율성이 의문시되기도 한다. 현행과 같은 시험 과목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소양의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험 출제 방식도 지원자의 소양 평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식의 비판과 함께 채용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언론계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나 실무 경험보다는 학력고사 준비하듯 영어와 상식 공부에 치중하고 있어 대학교육이 갖는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채용 제도상의 문제는 언론 인력의 중요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문방송학과의 교육 현황과 함께, 언론의 발전과 언론인의 자질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문방송학과의 교육목적이 언론에 종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만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업계와 학계의 연결은 인력 충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상의 균형을 갖춘다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첨언하자면 신문과 방송의 영역뿐 아니라 모든 매스컴 관련 분야로의 진출 및 협력의 문제이다. 뉴 미디어의 발달은 신문방송학의 영역을 과학 기술과 관련하여 매우 급진적인 형태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 진출의 영역을 기존의 언론계로만 한정짓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신문방송학과의 사회 진출에 관하여 탄력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3. 개선 방향

#### 1) 교육목표의 실현 방안

신문방송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신문방송학이 사회과학, 그 중에서도 응용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방송학의 교육목표는 지적 목표 달성과 현실적 사회 적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가동시켜야 한다. 지적 목표는 이론 교육을 통해, 사회적 적용은 이론을 토대로 한 실무 교육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을 연결시켜 주는 가치로 '사회적 책임감'과 '창의력'의 함양을 들 수 있고, 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관건이다.

이론 교육의 강화 및 기능적 실무 교육의

강화가 신문방송학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신문방송학과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많지만, 이론은 사회 현상을 바르게 기술하고 설명하며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이론 교육 강화의 의미는 이론 과목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론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무는 단순한 기능인, 기술자로 대상화될 수가 있다. 실무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힘의 바탕에 이론이 포진해 준다면, 이는 전쟁에서 용맹과 지력을 겸비한 장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무 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기능인 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실무 교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실무 교육이란 기능과 기술의 전수차원에서 진일보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업 진출 이후에도 실질적인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자재 및 설비 부족 등의 문제는 학교 당국과 교수진이 실무 교육의 중요성을 상호 인식하여 기자재 확충 및 개선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산학협동 측면에서의 위탁교육도 고려할 수 있다.

교과목 편성상의 문제로 지적한 전공의 미분화 및 복합성 문제는 단순히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과의 전반적인 학사 제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전향적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언론 대학으로의 독립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 사회 진출 등 전반적인 학과의 문제점에 관련된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신문방송학과의 중간 점검 정도로 보아 두면 좋겠다. 앞에서 지적한 신문방송학과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신문방송학과를 사회과학 대학(일부 대학은 정경 대학)에서 분리, 언론 대학으로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신문방송학이라는 단일한 학과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내용성을 보증할 수 없다. 그만큼 언론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환경을 담아내야 할 영역 역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 신문방송학을 흔히들 학문의 십자로라고 부른다. 신문방송학이 학문의 십자로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학문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언론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언론 대학으로의 분리, 독립은 이미 국내 유수의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학과 발전 방안으로 모색되어 실현이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3) 신문방송학과, 그 미래의 모습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는 변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신

문방송학의 역사 40여 년 가운데 현재의 시기만큼 거세고 민감하며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신문방송학은 학문의 교차로라는 그 별칭답게 혹은 정보화 시대를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만들어가는 일 주역답게 신문방송학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에 정보가 있고, 정보를 둘러싼 환경이 있으며, 정보를 움직이게 하는 미디어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 신문방송학은 정보와 미디어, 환경과 사람 모두를 다루는 학문이다.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더 이상 신문이나 방송같은 매체의 틀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 매체와 매체의 경계를 넘어서, 직업과 직업의 경계를 넘어서, 학문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또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현실을 밝히,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의 학문이 바로 신문방송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최창섭/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과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각기 언론 분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언론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방송철학』, 『자아 커뮤니케이션』, 『방송총론』, 『교회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고, "TV와 폭력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